

# “침수 피해 대처 효과적...사용법 정확히 익혀야”

●여름철 풍수해대비서구 ‘양수기 가동 합동훈련’

광주천변 광천2교서 자율방재단원 50여명 참여  
연료 ‘휘발유’·호스 물 채우기·사후 관리 등 강조

“양수기는 초기 대처로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올바르게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5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천변 광천2교 인근. 광주 서구가 풍수해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주관한 ‘양수기 가동 합동훈련’을 앞두고 서구 자율방재단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다. 서구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배수작업이 필요하나 양수기 사용이 미숙할 경우 초동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양수기 작동방법 및 이론교육을 맡은 임진석 강사도 “올바른 사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범을 보였다.

이날 교보재론 농업용 일반 양수기와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케이블 양수기가 사용됐다.

임 강사는 “일반 양수기는 흔히 접해 대부분 쉽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한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며 “특히 연료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휘발유(가솔린)를 사용해야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강사는 “텅 빈 호스를 양수기에 끼울 경우 물을 빨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호스에 물을 채운 뒤 결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밖에도 호스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도록 입구 쪽에 돌이나 무거운 물체를 다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준비를 마친 임 강사가 양수기 스위치를 온(on)에 두고 연료 코크와 공기 조절 밸브가 개방된 채로 줄을 잡아당기자 시동이 걸렸다. 곧이어 천변에 잠긴 호스를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양수기 가동 합동훈련이 지난 5일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2교 인근에서 실시됐다. 이날 서구청 각 동 재난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과 자율방재단원들이 양수기 가동훈련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타고 올라온 물은 배출구로 분출됐다.

일반 양수기 교육 뒤에 케이블 양수기 작동 시범이 이뤄졌다.

임 강사는 “케이블 양수기는 호스에 물을 채울 필요 없이 바로 결합, 작동하

면 된다”면서도 “일반 양수기보다 간편하지만 물 흡입량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두 양수기 중 뭐가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어느 종류라도 사용

법을 제대로 알아야 유사 시 대응할 수 있다고 임 강사는 재차 강조했다.

모든 시범이 끝나자, 자율방재단원들은 양수기 앞에 모여 실제로 작동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단원이 “시동은 걸렸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묻자 임 강사는 “본체 위 마개가 닫힌 통에 ‘미중물’을 채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수기가 돌아가더라도, 미중물이 없으면 빨아들이는 힘(압력)이 약해 물을 퍼올릴 수 없어서다. 실제 양수기는 미중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지 버튼을 눌러야 했다.

모든 단원이 실습을 마치고 임 강사는 “양수기는 흙이나 모래, 자갈 등의 침전물도 물과 함께 빨아들여 사용 후엔 반드시 장비를 분리해 이물질 제거하고 잘 말려야 한다”며 “장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습을 마친 한 단원은 “폭우나 태풍 등의 재난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번 교육 덕에 유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강사는 “양수기가 풍수해를 막는 예방책은 못되겠지만, 초기 대처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오늘의 교육이 여름철 재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재영 기자

## ‘제 발로 경찰서’·‘환각 파티’...광주 마약 사범 잇따라

떨어트린 필로폰 찾으러 지구대 갔다 들롱  
대마 등 각종 마약 공동 투약한 7명도 적발

광주에서 마약 사범들이 잇따라 검거,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숙소에서 나오다 현금 100만원과 필로폰

이 든 봉투를 떨어뜨렸고, 이를 찾기 위해 인근 지구대로 향했다.

봉투를 보관 중이던 지구대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여러 겹의 휴지로 말아둔 흰가루를 수상이며겨 용도를 깨물었다.

‘개미를 쫓는 봉산’이라 했다가 아니라고 반복하는 등 횡설수설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필로폰 투약 사실을 털어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순천에서 판매 업체가 마약을 지정한 장소에 두면, 그것을 가져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환각 파티’를 벌인 B(21)씨 등 7명을 검거,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7일 광주 광산구 한 호텔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대마, 케타민 등을 수차례 공동투약한 혐의다.

다른 마약범죄를 수사하던 서부경찰은 쫓고 있던 판매자의 대포통장에 누군가 무통장으로 입금,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

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7명은 서로 지인이거나 동창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 최대 7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합동단속추진단(TF)을 구성, 마약범죄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상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 기간 던지기 수법 피의자 22명, 양귀비 불법 제배 피의자 7명 등 총 29명을 검거(9명 구속)해 전년 대비 222% 이상의 검거 실적을 달성했다.

안재영 기자

## 70대 운전 승용차가 시장 노점 덮쳐...7명 부상

여수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시장 노점상을 덮쳐 상인들과 행인들이 다쳤다.

6일 오후 4시32분께 여수시 서교동 서시장에서 A(72)씨가 운전하던 승용

차가 도로변 상인들과 행인들을 쳤다.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노점을 하던 상인과 행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 중 상인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에 잠시 멈췄다가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들은 “A씨의 차가 멈췄다가 앞뒤로 한동안 움직이더니 갑자기 속

력을 내고 도로변 상인들을 덮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에서는 음주 가검되지 않았다. /여수=김진선 기자

## 市교육청, 산하 기관장 성추행·갑질 중징계 요청

광주시교육청이 산하 기관장의 성추행과 갑질 의혹 일부를 사실로 확인, 징계를 나섰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직속 산하 기관 원장인 장학관 A씨(4급)가 직원들에게 갑질과 성추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감사실에서 조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돼 중징계 요청을 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시교육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3-4월 퇴근 이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자며 직원들을 자신이 생활하는 곳으로 불렀으며, 출장 중 차를 타고 가면서 직원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지난 달 중순께 A씨의 갑질과 성추행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감사실에 제기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된 이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한 뒤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다이어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서 59명 갑질 사고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광주에서 갑질로 인해 총 5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갑질로 인해 사망 3명, 부상 56명 등 총 5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6-7월에 각각 10명씩 사고가 발생, 전체의 약 34%를 차지했다.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따른 영향으로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젖은 손으로 플러그 등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콘센트나 멀티탭 주변을 청소하고 손상된 전선은 교체한다. 실외에서는 빗물이 고인 맨홀이나 신호등, 입간판 등은 전기가 흐를 수 있어 가능하면 접촉을 피하고 멀리 떨어져 다녀야 한다.

박성강 기자



www.slhealth.co.kr

#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걸이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 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 일본 의욕기인증

주요기능 : 4D마사지볼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어윈)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유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롤 LS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입체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유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럼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